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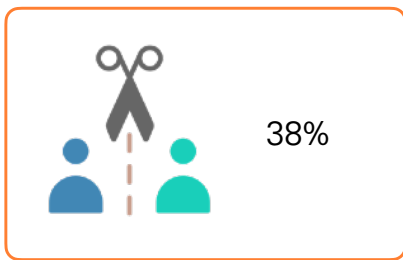


[가족 관계 단절 현황: 미국 조사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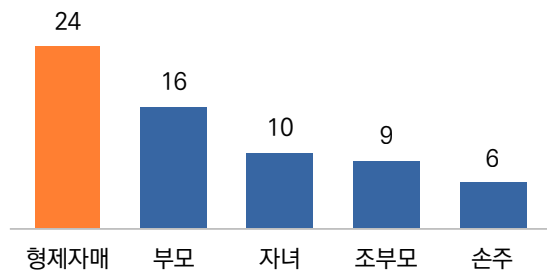
미국 성인 38%, 가까운 가족과 단절 경험!

- 최근 유고브의 미국 성인 시민 대상 조사 결과는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 관계가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균열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준다.
- ‘가족 단절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 시민의 38%가 현재 부모나 자녀 등 가까운 가족 중 한 명 이상과 단절된 상태라고 응답했다.
- 단절된 가족의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‘형제자매(24%)’ 간의 단절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, 이어 ‘부모’(16%), ‘자녀’(10%) 순이었다.

[그림] 현재 가까운 가족(부모·형제자매·자녀·조부모·손주)과 단절된 비율 (2025, 미국 성인 시민 대상, N=4395)



[그림] 현재 가족 관계 단절 비율 (2025, 미국 성인 시민 대상, N=4395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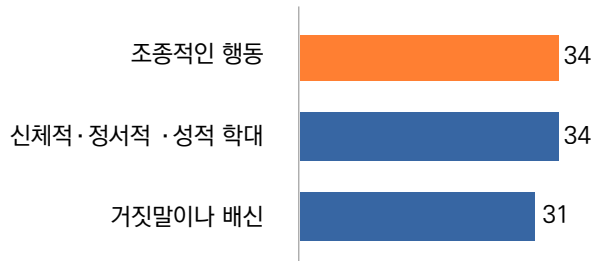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유고브(YouGov), Family estrangement: How often and why it happens, 2025.08.08.(미국 성인 시민 4,395명, 온라인 조사, 2025.07.24. ~08.01/4차례 진행) (<https://yougov.com/en-us/articles/52733-family-estrangement-how-often-and-why-it-happens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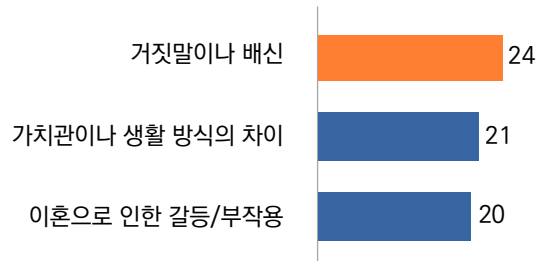
부모와는 ‘조종·학대’, 자녀와는 ‘배신·가치관 차이’로 끊어져!

- 부모 및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원인으로 부모와 단절된 자녀는 ‘조종적인 행동’(34%)과 ‘학대’(34%), ‘거짓말·배신’(31%)을 주요 원인으로 꼽은 반면, 자녀와 단절된 부모는 ‘거짓말·배신’(24%), ‘가치관·생활 방식의 차이’(21%), ‘이혼 갈등’(20%) 순으로 응답했다.
- 자녀 세대는 부모의 통제 및 도덕적·정서적 가해 행위를, 부모 세대는 신뢰 훼손 및 세대 간 가치관 대립을 주요 단절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드러났다.

[그림] 부모와 관계가 단절된 이유 (2025, 부모와 단절 상태인 자, N=693, 복수응답, 상위 3개, %)



[그림]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이유 (2025, 자녀와 단절 상태인 자, N=419, 복수응답, 상위 3개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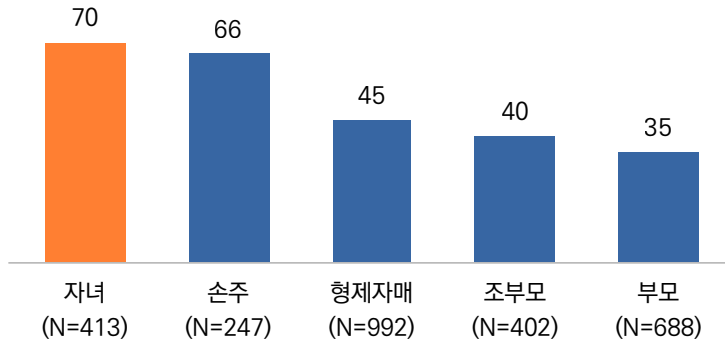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유고브(YouGov), Family estrangement: How often and why it happens, 2025.08.08.(미국 성인 시민 4,395명, 온라인 조사, 2025.07.24. ~08.01/4차례 진행) (<https://yougov.com/en-us/articles/52733-family-estrangement-how-often-and-why-it-happens>)

자녀와 단절된 부모 70% vs 부모와 단절된 자녀 35%만 ‘화해 고려한다’!

- 단절된 가족 구성원과의 화해 고려 의향에 대해 자녀와 단절된 부모의 70%가 ‘화해를 고려한다’고 응답한 반면, 부모와 단절된 자녀는 35%에 그쳐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.
- 자녀나 손주 등 아랫세대로 갈수록 윗세대에 비해 관계 회복에 훨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, 세대 간 정서적 단절의 골이 깊음을 시사한다.

[그림] 단절된 가족 구성원과의 화해 고려 의향 ‘있음’ 비율 (2025, 해당 가족과 단절된 응답자 기준, %)



※출처 : 유고브(YouGov), Family estrangement: How often and why it happens, 2025.08.08.(미국 성인 시민 4,395명, 온라인 조사, 2025.07.24. ~08.01/4차례 진행) (<https://yougov.com/en-us/articles/52733-family-estrangement-how-often-and-why-it-happens>)